

조선후기 왕릉 조성 시 목공사 장인의 배정과 조달 방식

A Study on the Assignment and the Procurement Method of Wood Works' Craftsman in Royal Tombs Construct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이 상 명*

Lee, Sang-Myeong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황릉사복원정비사업단 선임연구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e assignment and the procurement method of wood works' craftsman through the Salleung-dogamuigwes in royal tombs construct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study. First, Carpenter and other nine craftsmen were introduced in carpentry works. The craftsmen were put in by occupation to maintain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 building construction by wood processing area. It was distinguished by frame member, Sujangjae, window framing wood, decorative member. Second, sawyer showed a sharp increase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declined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building materials and the growth of civilian wood products. As a maximum of 300 people have been assigned to the craftsmen in the woodwork, it can be seen that the work has been divided by the process. Third, the national carpenter was difficult to procure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From the middle 18th century, the system procuring national carpenter was stabilized. In the 19th century, the input ratio of the national craftsmen seems to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seems to have kept it at the minimum level. Forth, sawyer were procured through Seongonggam from the late 18th century through the mid 19th century. That means that the role of the sawyer had become important. Since Jogakjang is not a necessary manpower, it usually has civilian artisans.

주제어 : 장인, 목수, 톱장이, 조각장, 선장, 조선왕릉, 산릉구역, 산릉도감의궤

Keywords : Craftsman, Carpenter, Sawyer, Jogakjang (Craftsman to sculpt Gongpo), Seonjang (Craftsman to build ship),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Royal Tombs Constructions, Salleung-dogamuigwes

1. 서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당 재료와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연장이 필요하고,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요구된다. 조선후기 의궤에서는 이러한 기술자를 공장(工匠) 또는 장인(匠人)이라고 칭했다.

건축 관련 장인¹⁾의 기술력은 집의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고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관리하고 동원하여 왔다. 건축 장인은 한국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로서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일찍이 이에 주목한 연구자인 김동욱은 1980년대 초부터 진행한 연구²⁾와 일본에서의 박사논문³⁾을 근간으로

* Corresponding Author : dna100@hanmail.net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논문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의 '4.1.1 장인' 중 목공사 장인에 대해 주제를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하여 작성한 논문임.

1) 본고에서는 '공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장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김동욱, 「新羅의 「大匠」에 대하여 -韓國古代建築의 造營體制-」,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계회계), 2권, 1호, 1982; 「高麗時代 建築工匠의 官職制度考 -造營體制에서 본 韓國建築의 古代와 中世-」, 건축, 26권, 3호, 1982;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 -朝鮮前期 中世의 造營體制的 崩壞-」, 건축, 27권, 3호, 1983;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I) -朝鮮後期 官營建築工事에서의 工匠組織-」, 건축, 27권, 4호, 1983;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II) -朝鮮後期 佛寺造營에서의 工匠組織-」, 건축, 27권, 6호, 1983; 「朝鮮後期 建築工匠의 勞賃考 -勞賃支給方法的 變化에서 본 官營建築工事에서의 工匠의 雇傭體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권, 1호, 1985; 「조선조 17세기 궁궐건

『한국건축공장사연구』⁴⁾를 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고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건축 장인과 관련하여 조직, 동원 방식, 노동 조건 등을 다루었고, 조선후기는 영건도감의궤(營建都監儀軌)를 사료로 직능 분화와 관속 장인에서 점차 민간 장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풀어내는 등 건축 장인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산릉도감의궤

No.	능 호	의궤명(편찬 시기)	비고
1	목릉	宣祖穆陵遷葬山陵都監儀軌(1630)	천장
2	영릉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	
3	숭릉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1674)	
4	익릉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1681)	
5	휘릉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1689)	
6	사릉	定順王后思陵封陵都監儀軌(1699)	봉릉
7	장릉	端宗莊陵封陵都監儀軌(1699)	봉릉
8	명릉	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1702)	
9	단의빈묘	端懿嬪墓所都監儀軌(1718)	묘소
10	민회빈묘	愍懷嬪封墓都監儀軌(1719)	묘소
11	익릉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1725)	
12	온릉	端敬王后溫陵封陵都監儀軌(1739)	봉릉
13	의소세손묘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1752)	묘소
14	소령원	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1753)	원소
15	순강원	敬惠仁嬪上諡封園都監儀軌(1755)	원소
16	홍릉	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1757)	
17	사도세자묘	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1762)	묘소
18	원릉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1776)	
19	건릉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1800)	
20	건릉	正祖孝懿王后健陵山陵都監儀軌(1821)	천장검
21	연경묘	孝明世子延慶墓所都監儀軌(1830)	묘소
22	인릉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1835)	
23	경릉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1843)	
24	수릉	翼宗綏陵山陵都監儀軌(1846)	봉릉
25	휘경원	綏嬪徽慶園遷奉園所都監儀軌(1855)	천원
26	수릉	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1855)	천봉
27	인릉	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1856)	천봉
28	예릉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1864)	
29	휘경원	綏嬪徽慶園遷奉園所都監儀軌(1864)	천원

조선후기 영건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목공사, 석공사, 흙공사, 칠 관련 장인 등 공종별로 장인이 어떠한 일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⁵⁾

축공사에 종사한 목수편수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1권, 1호, 1992
 3) 김동욱, 『韓國建築の生産組織の變遷に關する研究』, 일본와세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4)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한편, 조선후기 왕릉 조성 과정을 기록한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를 중심으로 동원된 장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장인의 소속 변화와 중요 장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⁶⁾ 장인의 조영 활동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⁷⁾도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유형의 공사 과정을 기록한 산릉도감의궤를 통해 조선후기 목공사 관련 장인에 집중하여 장인의 배정 방식과 직종 세분화 과정의 시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산릉도감에서 장인 조달 방식을 통해 관속 장인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건축 생산 환경의 변화와 접목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산릉공역은 크게 능상(陵上)의 석물과 봉분을 조성하는 것과 능하(陵下)의 정자각 등 건축물을 조성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능하의 건축물은 산릉도감 내 조성소(造成所)에서 담당한다. 본고는 왕릉 조성 시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조성소에 투입된 목공사 장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치목 영역에 따른 장인 배정

2-1. 직종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

산릉공역에서 목공사는 용산강 일대 치련소(治鍊所)로 목재를 반입하여 초련, 즉 소요 규격에 맞춰 1차 가공을 한 후, 능소로 옮겨 재련과 정련을 마치고 난 다음 조립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진행된다.

부재 유형별로 치목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보, 도리, 서까래 등 가구 부재는 자귀 또는 대패 등으로 재련과 정련을 거치고, 인방을 비롯한 수장재와 창살, 울거미 등 창호재, 개관 등 판재는 톱질로 소요 규격을 켜고, 대패 등으로 마감한다. 그 외 공포 등 조각이 필요한 부재는 소요 규격으로 톱질하고, 끌 등으로 세밀하게 장식한다. 이와 같은 부재 유형별 치목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산릉공역에는 다양한 장인이 동원되었다.

<표 2>는 목공사에 투입된 장인의 종류와 인원이다. 목수(木手)는 치목과 부재 조립에 모두 관여하였다. 나머지 8종의 장인은 치목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목수 우두머리는 편수(邊首)이다. 목수편수는 산릉도감이 조직되면서 회동일부터 대기⁸⁾하여 공역을 준비한다.

5) 이연노,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 -영건도감 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권, 8호, 2009
 6) 장경희,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장인 연구 -왕릉 정자각과 석의물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호, 2007
 7) 문영식, 『조선후기 山陵都監儀軌에 나타난 匠人의 造營活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표 2. 산릉구역 내 목공사 장인과 투입 인원 (단위: 명)

No.	능 호	시 기	木手	引鉅軍		歧鉅軍	擧乙鉅軍	船匠	蹄刻匠	雕刻匠	木鞋匠	합 계
				大引鉅軍	小引鉅軍							
1	영릉	1659	65	30			-	-	4	-	-	99
2	송릉	1674	76(2)	25	-	-	10	-	4	-	-	115
3	익릉	1680	73(2)	25			-	-	5	-	-	103
4	휘릉	1689	75(4)	25			-	-	5	-	-	105
5	사릉	1699	31(1)	10*			-	-	3	-	-	44
6	장릉	1699	28(2)	10*	-	-	-	-	-	3	-	41
7	명릉	1702	71(1)	15*			4*	-	5	-	-	95
8	의릉	1725	76(4)	15*			4*	-	-	6	-	96
9	온릉	1739	66	20	8	4	8	-	-	5	-	111
10	홍릉	1757	79	35*	16*	12*	12*	-	-	8	-	162
11	원릉	1776	76	35*	16*	12*	12*	-	-	20	10	181
12	건릉	1800	96	20	24	14	8	-	-	20	10	192
13	건릉	1821	74	10	20	-	4	6	-	9	10	133
14	경릉	1843	190	20	10	8	8	20	-	25	20	301
15	수릉	1846	130	15	4	10	8	20	-	25	20	232
16	인릉	1856	115	5	-	6	2	10	-	1	2	141
평균			83	20	12	7	7	14	4	12	12	135

* () 안의 숫자는 편수가 표기된 수임. *는 패 단위를 명으로 변경한 것임. 인릉(1835), 수릉(1855), 예릉(1864)는 의궤에 장인질이 생략되어 있음.

산릉도감에서는 전례에 해당하는 봉분, 석물, 정자각 등 각종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료 및 장인 편수를 파견하여 살펴도록 하는데, 목수편수는 낭청과 함께 파견되어 정자각 실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⁹⁾ 이를 통해 필요한 목재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였는데, 목재를 고정하는 각종 철물의 수량 산출도 목수편수의 역할이었다.¹⁰⁾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1830) 조성소 장모부역(匠募赴役)에는

丁字閣 碑閣 水刺間 守僕房 木手…齋室 香大廳 典祀廳
木手…假齋室 木手…內人假家 木手

라고 기록하여 조성소 목수의 공사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정자각, 재실, 가재실, 나인가가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자각 영역에는 비각, 수라간, 수복방이 포함되고, 재실 영역에는 향대청, 전사청 등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최소 1명의 편수 또는 부편

수가 목공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각종 가가(假家) 조작에 목수가 투입되었다.

영건역 중 인정전(1805)이나 홍인지문(1865)의 경우, 각각 정현편수(正絃邊首), 연목편수(椽木邊首), 부연편수(婦椽邊首)와 연목편수(椽木邊首), 공답편수(貢踏邊首), 수장편수(修粧邊首), 조각편수(彫刻邊首), 목혜편수(木鞋邊首), 정현편수(正絃邊首)로 공정별로 세분화되기도 하였는데,¹¹⁾ 산릉역 내 건축물은 규모가 크지 않고, 층층의 복잡한 구조도 아니어서 분업화된 편수가 동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상 공정별 편수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특정 공정에 유능한 장인이 적절하게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툽장이라는 인거군(引鉅軍), 대인거군(大引鉅軍), 소인거군(小引鉅軍), 기거군(歧鉅軍), 걸거군(擧乙鉅軍)이 등장한다. 산릉도감의궤에서는 『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 등 몇 차례 대인거장(大引鉅匠), 소인거장(小引鉅匠), 걸거장(擧鉅匠)으로 기록된 것 외에 툽장은 거의 ○○軍으로 표기하였다.

툽은 켄툽과 자름툽으로 구분된다. 켄툽은 목재의 섬유 방향으로 자르는 툽이고, 자름툽은 목재의 직각 방향

8) 『정순왕후사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경인 12월 초2일조
9)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이문질』, 정축 3월 14일 경기감영료조
10) 『익종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병오 3월 초9일조

11) 김동욱, 앞의 책, 209쪽

22 논문

으로 자르는 톱이다. 인거장, 기거장은 켈톱을 사용했고, 걸거장은 자름톱을 사용했다.¹²⁾

18세기 초 경종의릉산릉역(1725)까지는 인거군, 걸거군 또는 대인거군, 걸거군 2종이 공장질에 기록되었는데, 걸거군이 없는 경우도 다수였다. 하지만 다음의 의궤 기록을 보면 걸거군을 동원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투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상재목은 인거, 건정의 시간을 맞출 수 없으므로 대거 5패, 걸거 5패를 한성부에 명하여 예에 의거하여 축부하 오며¹³⁾ (인경왕후의릉산릉역)

성중 각처에서 모아온 재목은 지금 이미 용산강으로 운출하였습니다. 전일 용산 근처에 모아둔 재목은 아울러 용산강에서 벽련하오며 독도(뚝섬) 근처 재목은 근처에서 벽련하오니, 양처 목수 각 20명은 조역과 화정 4명과 함께 구하고, 대인거 각 2패, 걸거 각 5패, 화정 2명은 금일 요포를 지급하여 부역하심이 어떻겠습니까?¹⁴⁾ (장렬왕후의릉산릉역)

재목 벽련 목수 20명은 등록에 의거하여 모조역 20명, 대거 5패, 걸거 5패 합 75명 및 화정 4명을 그 실역 일수에 따라 요포를 마련하여 내리며¹⁵⁾ (인현왕후명릉산릉역)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기록을 보면,

재목 위아래 머리를 자르는 걸거의 역을 이미 명하여 대신 행하는 즉 10명 목수만으로 결단코 어려워 20명을 내려야만 담당할 수 있사온 줄로, 감히 품합니다. 수결내: 20명으로 배정하라.¹⁶⁾

라고 하여 걸거의 역이 목재 양단을 자르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걸거의 역을 대신할 수 있는 목수는 10명으로, 적어도 20명은 있어야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17세기 말까지는 필요한 경우 목수가 걸거의 역을 대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의궤의 다른 기록을 보면,

본소 감조관이 내려가 재목 위아래 머리를 절단하고자 걸거장 10명을 들이는 게 마땅한바 인술하여 내려가오되, 옆에서 얻어들이니 소위 걸거장은 본래 소속한 곳이 없어 모두 연강 소재 통상(桶商)이라고 하온바, 당차 추운 계절로 멀리 인술하여 가는 일은 심히 폐단이 있으므로,

목수배에 명하여 편리하게 절단하여 취용할 일을 분부하오니, 이용하는 걸거는 없을 수 없으므로 한성부에 분부하여 연강 통장(桶匠) 등이 상시 이용하는 걸거 3개를 임시로 취용한 후 환납하거니와¹⁷⁾

라고 하여 소위 걸거장은 소속된 곳이 없이 모두 강변에서 통을 만드는 장인(桶匠)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말까지 걸거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본업이라기보다는 통상과 같이 비슷한 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걸거만 업으로 하는 장인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승릉산릉역에 동원된 걸거장도 그러한 인력으로 생각된다.

인현왕후명릉산릉역(1702)부터 걸거군이 다시 등장하고, 이후 단경왕후은릉봉릉역(1739)부터 대인거군, 소인거군, 기거군, 걸거군의 4종으로 분화되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된다. 『단경왕후은릉봉릉도감의궤』 기록을 보면 직종이 분화되는 시기와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자각, 재실에 사역하는 공장 등을 무인, 신해 등록을 참고한 즉 소인거, 지거군, 걸거군은 원래 종류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는 없을 수 없는 자이므로 제색 공장을 간략히 품하오니, 명수에 따라 사역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수결내: 이에 의거하여 하라.¹⁸⁾

라고 하여 무인년(1698, 정순왕후사릉봉릉역)과 신해년(1731, 선의왕후의릉산릉역) 등록을 참조한바, 소인거(군), 기거군, 걸거군이 원래는 장인명이 아니었으나, 이러한 직종의 장인이 필요하여 사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30년대 초까지 소인거군, 기거군, 걸거군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장인이 있었더라도 국가 공식 문서상에는 직종으로서 분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툽장이는 패(牌)를 이뤘 작업하므로, 인력도 패 단위로 동원되었다. 대인거군은 5명이 한 패를 이루고, 소인거군, 기거군, 걸거군은 각각 2명이 한 패를 이뤘다.¹⁹⁾

산릉도감의궤상에 톱장이의 연장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대거(大鉅), 중거(中鉅), 조거(條鉅), 걸거(擧鉅) 4종이 확인된다. <표 3>과 같이 대거와 중거는 줄을 갖추었고, 걸거는 한 차례 줄을 갖춘 것으로 표기된 것을 제외하면, 조거와 마찬가지로 줄이 없는 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걸거는 당연히 걸

12) 이연노, 앞의 논문, 198쪽

13) 『인경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경신 11월 초8일조

14) 『장렬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무진 9월 초7일조

15)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신사 8월 9일조

16)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17)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18) 『단경왕후은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19) 『단경왕후은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

표 3. 산릉구역에서의 톱장이 연장

No.	능호	시기	대 거	중 거	조 거	걸 거	출 처
1	영릉	1659	大鉅9	中鉅3	-	舉乙鉅1	잡물실입총수
2	승릉	1674	大鉅5坐鉅乙具	中鉅5坐鉅乙具	條鉅2坐	舉乙鉅2坐	공장소용
3	익릉	1681	大鉅4坐鉅乙具	中鉅4坐鉅乙具	條鉅1坐	舉乙鉅1坐	공장소용잡물질
4	휘릉	1689	大鉅10漚具	中鉅10漚具	-	-	공장소용잡물질
5	사릉	1699	大鉅5注乙具	中鉅10注乙具	-	-	품목질
6	장릉	1699	大鉅3漚具	中鉅3漚具	-	-	본소급공장소용잡물
7	명릉	1702	大鉅4坐鉅乙具	中鉅4坐鉅乙具	條鉅1坐	舉乙鉅1坐鉅乙具	공장소용잡물질
8	의릉	1725	大鉅1	中鉅3	條鉅1	鉅乙鉅入量	잡물총수
9	온릉	1739	大鉅2坐漚具	中鉅4坐漚具	條鉅1坐	-	공장소용

거군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줄을 갖춘 대거와 중거는 인거군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대인거군과 소인거군용으로 추정된다. 문울거미에 사용하는 목재 등을 통상 조리목(條里木)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면 조거는 작은 단면의 긴 목재를 켜는 용도로 기거장이 사용한 톱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인원 구성과 사용한 톱의 종류를 고려하면 대인거군은 글자 그대로 큰 원목을 판재형으로 켜고, 소인거군은 작은 원목을 판재로 켜거나, 대인거군이 켜 판재를 다시 작게 톱질했을 것이다. 따라서 인거군은 판재나 수장재를 켜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기거군은 대인거군 또는 소인거군이 켜 목재로 다시 문울거미나 세살 등 창호재나 조리목을 주로 켜는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그렇다면 18세기 초까지는 인거군이 대거, 중거, 조거를 모두 다루었고, 때로는 목수와 함께 걸거의 역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3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인거군, 소인거군, 기거군 등의 3종으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톱장이는 18세기 초까지는 인거군 또는 대인거군이 모든 종류의 톱을 다루었고, 자름톱질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공중 분화는 아직까지 미약한 단계였다. 하지만, 1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제재 공종이 본격적으로 세분화되었고, 이에 따른 톱장이의 직종도 분화되어 이전 시기에 비해 톱 가공 기술이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목재상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영건축의 목재는 산지에서 직접 벌목

후 수로로 운반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외도고(外都庫) 공인과 민간 목재상을 통해 연목과 판재 등을 공급받는 방식을 함께 취하게 된다.²¹⁾ 민간에서 판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판재 가공 기술이 한 단계 진전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영건축을 비롯한 한국 목조건축의 생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을 경계로 건축 부재 가공 측면에서 미시적인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장(船匠)은 배를 만드는 장인인데, 산릉도감의궤에서는 강장(缸匠)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선장은 19세기 들어 효의왕후건릉산릉역(1821)부터 산릉역에 투입되었다. 영건역에서는 목수 부족으로 인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선장을 투입하였다. 인정전을 영건할 때 대자귀를 주어 초치련을 하도록 하였는데, 목수보다 훨씬 나았다는 기록²²⁾으로 보아, 당시 선장의 치목 실력이 상당히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산릉역에서 선장은 소현세자묘소역(1645)부터 석재 운반을 담당하는 수석소(輸石所)에 동원되는데, 석재 운반 기구인 설마(雪馬) 등을 제작²³⁾하는 역할을 하였다. 설마의 형태가 배와 같이 유선형이기 때문에 곡선 치목에 적합한 선장을 투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목공사에는 동원하지 않다가 효의왕후건릉산릉역(1821)에 동원하는데, 그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건역과 동일하게 치목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효현왕후경

20) 이연노, 앞의 논문, 198쪽에서도 작업장에 설치되는 침목 등과 풍속도를 근거로, 톱장이별 역할을 추정하였는데, 필자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성과에 더하여 직종별 사용한 톱의 종류, 톱장이 인원 구성 및 직종 분화 시기를 특정하였고, 건축 생산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톱장이의 변화 과정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21) 김왕직, 「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건축경제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45~52쪽; 이상명,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04쪽

22) 이연노, 앞의 논문, 199쪽

23)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 「좌수석·장인질」

릉산릉도감의궤』(1843) 기록을 보면,

동별영 소재 대량(大樑) 치런 시 목수 3명, 선장 10명, 대
인거 2패, 모군 15명을 부역하오며²⁴⁾

라고 하여 대량을 치목할 때 목수보다도 많은 선장 인원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주로 가구 치목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각장(蹄刻匠)은 산릉역에서 18세기 초까지 투입되었다. 영건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말발굽을 고치는 제각장(蹄履匠)이 등장하고, 비슷한 명칭인 제각장도 등장하였다.²⁵⁾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1674) 기록을 보면,

정자각의 사우스미(四隅箭尾), 각양 공포 조각의 역은 다른 것과는 달리, 관례를 따라 치런하여 완성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는 제도입니다. 굽혔다 펴는 모양 사이는 손을 쓰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솜씨가 정밀하고 미세해야 하므로, 약간의 공장으로 십수 일 내 완역할 수 없습니다. 제각장은 즉 지금 본소로 온 자가 다만 3명이온바, 기한을 맞춰 조각을 마치려는데, 그 사세가 어려우므로 제각장 3, 4명에게 알려 출송할 일을 한성부에 분부하거니와, 본관이 들으니 불암사 승 청담, 소습 등이 조각의 역은 그 공품이 매우 신묘하다고 하므로 본관에 명하여 급히 영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당상 수결내: 이에 의거하라.²⁶⁾

라고 하여 정자각 살미 및 공포 조각의 역에 제각장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불암사 승려 청담, 소습이 조각에 신묘하여 추가로 요청한 내용으로, 제각장이 공포 조각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각장(雕刻匠)은 단종장릉봉릉역(1699)에 처음 투입되었다. 제각장과 조각장의 관계는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1699) 조성소 기록이 도움이 된다.

전부터 정자각 공포 조각 시 제각장을 예로 사역하였는데, 소위 경중(京中) 제각장은 모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조각장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도장(刃藏)류에 각각 차이가 있어 지금 오는 조각장 등이 소지하여 온 기계는 불과 소각도(小刻刀)로 원래 제각의 칼은 없사옵습니다. 그러므로 대동곶(大東串) 6개, 언미리도(彦未里刀) 6개, 웅미리(雄未里) 6개, 직기착(直只錯) 6개, 대각도(大刻刀) 6개를 노야소에 명하여 급히 타조하여 진배토록 하오며²⁷⁾

라고 하여 이전에 사역하던 경중의 제각장이 이미 사망하여 조각장을 대신 쓰려고 하는데, 조각장의 연장이 소각도(小刻刀) 정도밖에 없어 제각장의 연장을 노야소에 타조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제각장의 연장으로서는 대동곶(大東串), 언미리도(彦未里刀), 웅미리(雄未里), 직기착(直只錯), 대각도(大刻刀) 등이다. 이를 보면 엄밀히 제각장과 조각장은 사용 연장이 다르고 일하는 영역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조각장은 작은 규모의 목공예품을 다뤘던 것으로 보이고, 제각장은 그보다 규모가 큰 조각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각장 인력이 고갈되어 동원된 조각장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해서 투입되었다.

목혜장(木鞋匠)은 18세기 후반 의소세손묘소역(1752)부터 등장하였다. 목혜장은 나막신을 만드는 장인이다.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1776)의 조성소 기록을 보면,

금차 정자각 공포 조각 시, 조각장 19명, 목혜장 8명이 사용하는바, 각귀(角耳) 2개, 얼미리(唵味里) 크고 작은 것 합하여 38개, 평미미리(平味味里) 19개, 각도(刻刀) 9개, 소착(小錯) 5개를 타조하여 사용 후 다시 봉상차...²⁸⁾

라고 하여, 정자각 공포 조각 시 조각장 19명과 목혜장 8명의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 목혜장이 조각장과 함께 공포 조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용한 연장은 각귀(角耳), 얼미리(唵味里), 평미미리(平味味里), 각도(刻刀), 소착(小錯)으로 앞서 단종장릉봉릉역에 쓰인 연장과는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제각장, 조각장, 목혜장 모두 정자각 공포 제작을 위해 투입되었는데, 17세기까지는 제각장이 전담하였고, 18세기 들어 조각장으로 대체되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는 목혜장까지 공포 조각에 투입되었다. 이들 모두 목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인이지만 관영건축에서는 필요한 경우 비슷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데려다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장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표 2>에는 없지만 창호 제작을 담당하는 소목장(小木匠)과 窓戶木手(창호목수)는 문효세자묘소역(1786)과 효명세자연경묘묘소역(1830)에 각각 한 차례만 등장하였다. 산릉역에서 소목장 업무는 일반 목수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릉공역에서는 목수를 비롯해 9종의 장인이 목공사에 투입되었다. 장인별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24)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계묘 9월 초8일조

25) 이연노, 앞의 논문, 199~200쪽; 본 연구에 따르면, 영건도감의궤에는 제각장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6)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갑인 9월 21일조

27)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무인 11월 11일조

28)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병신 3월 11일조

이는 각종 부재의 치목 영역에 따른 직종별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릉구역에서는 크게 가구부, 공포부, 수장·창호부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장인을 투입하였다. 첫째,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 큰 가구 부재는 목수가 직접 치목하였는데, 19세기에는 실력 있는 선장도 함께 참여하였다. 둘째, 인방 등 수장재와 세살, 울거미 등 창호재는 톱장이가 치목하였다. 톱장이는 18세기 중엽 대인거군, 소인거군, 기거군, 걸거군의 4종으로 분화하여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셋째, 공포, 화반 등 조각이 필요한 부재는 일반적인 목공사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장인이 있지는 않았다. 물론 목수 중 손재주가 좋은 장인이 다룰 수도 있었지만 관영건축에서는 세밀한 조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인인 제각장, 조각장, 목혜장을 투입하여 관영건축의 목공사 품질을 유지시켰다.

2-2. 직종별 투입 인원의 증감

목수의 인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시기에 따라 편차가 확인된다. 산릉역의 경우 18세기까지는 75명 정도가 기준이 되었는데, 사릉, 장릉 및 온릉은 봉릉역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산릉역에 비해 적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19세기 전반부터는 인원이 증가하는데, 효현왕후경릉산릉역(1843)의 경우 190명까지 대폭 증가하였다가 순조인릉천봉산릉역(1856)에서는 115명까지 감소하였다.

톱장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18세기 중엽 단경왕후온릉봉릉역(1739) 이후 4개의 직종으로 분화되었으므로, 이를 기점으로 인원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경왕후온릉봉릉역 이전에는 봉릉역의 경우 10명, 산릉역의 경우 14~35명으로 2배 이상이고, 이후에는 봉릉·천봉역의 경우 14~37명이지만, 산릉역의 경우 40~75명으로 봉릉·천봉역의 비례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선장은 효의왕후건릉산릉역부터 6~20명 정도 투입되는데, 목수에 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은 아니었다.

공포 조각을 담당한 제각장, 조각장, 목혜장의 투입 인원을 보면, 제각장은 경종의릉산릉역(1725)까지 투입되는데, 3~5명이 동원되었다. 조각장은 단종장릉봉릉역부터 투입되는데, 정성왕후홍릉산릉역까지는 3~8명으로 약간 증가되었다. 이후 영조원릉산릉역부터는 2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때부터는 목혜장도 10명 투입됨에 따라 조각장인은 총 30명이 동원되어 이전 시기에 인원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세기 중엽 효현왕후경릉산릉역과 익종수릉산릉역에는 조각장 25명, 목혜장 20명으로 최대 45명까지 증가하였다.

목공사에 참여한 장인 수는 18세기 초까지는 산릉역의 경우 100명 내외였는데, 18세기 후반부터는 톱장이와 조각장인의 인원이 증가하여 160~180명에 이르렀고, 19세기 중엽 효현왕후경릉산릉역에서는 선장과 조각장인의 인원이 급증하여 최대치인 301명이 동원되었다.

<표 4>는 목수의 공사 영역별 인원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정자각은 평균 43명, 재실은 41명, 가재실 34명, (나인)가가는 16명으로 정자각과 재실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정자각은 최대 8칸에 불과하지만 왕릉의 중심 전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릉구역에서 목수의 인원수 산정은 전례에 해당하는 산릉역의 등록을 검토한 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전례에 따라 투입하였다.²⁹⁾ 정성왕후홍릉산릉역과 영조원릉산릉역에서 톱장이와 조각장인의 인원 증가 이유는 의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효현왕후경릉산릉역에서의 급격한 인원 증가에 대해서도 의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표 4. 산릉역 내 공사 영역별 목수 인원

No.	능 호	시 기	정자각	재 실	가재실	(나인)가 가	합 계
1	휘릉	1689	36(2)	40(1)	-	15(1)	73(4)
2	장릉	1699	28(1)	21(1)	-	-	49(2)
3	의릉	1725	32(1)	20(1)	14(1)	10(1)	76(4)
4	온릉	1739	41	25	-	-	66
5	경릉	1843	70	70	50	-	190
6	수릉	1846	52	60	-	18	130
7	인릉	1856	45	50	-	20	115
평균			43	41	34	16	100

* () 안의 숫자는 편수가 표기된 수임.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공사 범위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는지 여부이다. <표 5>를 보면 건축 규모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성왕후홍릉산릉역부터 비각을 건립하여 공포 조각 수량이 소량 증가³⁰⁾하였지만, 조각장인의 인력은 이를 훨씬 상회하여 수요에 따른 자연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급격한 장인의 증가를 보인 효현왕후경릉산릉역의 경우에도 건축 규모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장인의 급증은 건축 규

29)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정축 2월 16일조

30) 비각은 초익공으로 꾸몄는데, 1칸 비각은 익공 4개, 2칸 비각은 익공 6개를 설치하였다.

26 논문

표 5. 산릉역의 공사 기간과 주요 건축물의 규모 (단위: 칸)

No.	능호	시기	산릉 공사 기간	정자각 입주일	정자각	가정자각	비각	재실	가재실	나인가가	합계
1	영릉	1659	1659. 5. 4 ~ 11.23	8. 9	8	-	-	47	42	13	110
2	승릉	1674	1674. 8.19 ~ 12.22	10. 9	8	-	-	48.5	59.5	20	136
3	익릉	1681	1680.10.26 ~ 1681. 3. 1	1. 5	8	-	-	49.5	60	○	117.5
4	휘릉	1689	1688. 8.26 ~ 1689. 1. 7	10.22	8	-	-	○	62.5	○	70.5
5	사릉	1699	1698.10.29 ~ 1699. 2.26	2. 3	5	-	-	30.5	-	-	35.5
6	장릉	1699	1698.10.29 ~ 1699. 3. 2	2. 8	5	-	-	33	-	-	38
7	명릉	1702	1702. 8.14 ~ 12.18	10. 7	8	-	-	49.5	63	○	120.5
8	의릉	1725	1724. 8.25 ~ 12.24	10.15	8	-	-	49.5	54.5	29	141
9	온릉	1739	1739. 3.25 ~ 5.26	5. 9	5	-	-	40	-	-	45
10	홍릉	1757	1757. 2.15 ~ 6.11	4.12	5	-	1	51	67	41	165
11	원릉	1776	1776. 3. 5 ~ 8. 2	5.26	5	-	2	62.5	67	41	177.5
12	건릉	1800	1800. 6.28 ~ 11.13	9. 6	5	-	2	58	68	43.5	176.5
13	건릉	1821	1821. 3. 9 ~ 9.12	7.16	5	5	1	62	68	43.5	184.5
14	경릉	1843	1843. 8.25 ~ 12. 7	11. 3	5	-	1	49	69	44.5	168.5
15	수릉	1846	1846. 1.18 ~ 10.11	4.28	5	-	2	59	21*	46	133
16	인릉	1856	1855. 1.18 ~ 1856.10.15	4.22	5	-	2	60	23*	71	161

※ *는 중사가가(中使假家)에 해당함.

모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공사 시기와의 관련성이다. 장인 인원의 증가는 18세기 후반 이후를 보면, 효현왕후경릉산릉역의 경우 정자각 입주(立柱)일은 11월 3일로 동절기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음력 기준 날짜이므로 동절기 초입으로 후속 공종인 미장공사, 기와공사 등 물을 쓰는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다음의 의궤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금차 겨울이 깊어, 니토의 역은 반드시 끓인 물을 쓰기 때문에 큰 솥 15~16개가 있어야만 시간에 맞춰 역을 취할 수 있습니다.³¹⁾

금차 정자각 이하 각처 개기처에 만약 눈이 쌓인다면 역이 어려우니³²⁾

재실 이하 각처 방벽 건정 솥은 소입에 따라 취용하였으며 건정 소용 상여와 1늬를 봉감하여 취용 후...³³⁾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목공사 관련 치목 등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목수 인원의 증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궤에도 이러한 정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1)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계묘 10월 22일조

32)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계묘 10월 28일조

33)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계묘 11월 3일조

금차 정자각 이하 제처 목역이 만분 시급하여 송도 목수 30명, 수원 강화 목수 각각 20명을 출능에 미쳐 능소로 보내 일을 기역에 이문하오며³⁴⁾

실제 경릉 정자각은 입주부터 지붕가구부 공사까지 3일 만에 주요 가구부를 완성한다.³⁵⁾ 19세기 정자각이 평균 5.9일이 소요됐던 것³⁶⁾과 비교하면 2배의 속도로 목가구를 조립한 것이다.

뒤이어 익종수릉산릉역(1846)과 순조인릉천봉산릉역(1856)은 모두 천봉에 해당하여 구릉의 목재를 다수 재사용하였기 때문에³⁷⁾ 치목 물량이 적었고, 봄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천봉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목수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보면 앞서 살핀 공사 시기에 따른 요인 외에도 다른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 가지 고려할 만한 요인은 19세기 들어 관속 장인이 점차 민간화하면서, 목수들이 생계를 위해 스스로 관영건축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목수 인원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톱장이의 인원은 19세기에 들어 18세기 후반에 비해

34)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계묘 8월 8일조

35) 이상명·김왕직, 「19세기 정자각의 시공과정과 시공관리 연구 -산릉 의궤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2권, 4호, 2016

36) 이상명·김왕직, 위의 논문, 66쪽

37) 이상명, 앞의 논문, 98~99쪽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공목재의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이전 목재는 부등목, 누주, 궁재, 연목 등 원목 단위로 조달되었는데, 19세기 이후로는 목재 조달품목에 각종 가공재가 포함되었다. 실제 공역에서도 <표 6>과 같이 판재 및 조리목을 호조 및 외도고를 통해 확보하였다. 외도고는 민간 목재상을 통해 직접 가공하거나 구입하여야 했고, 호조는 1차적으로 관 비축 물량을 전용하거나 민간 목재상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산릉공역에서 톱장이의 감소는 민간 목재상으로부터 가공된 목재를 사서 쓰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19세기 조성소에서 공급받은 가공목재

No.	능호	시기	조달처	품목 및 수량	
				판 재	조 리 목
1	건릉	1800	戶曹 (私賈)	박송판 100널	-
2	건릉	1821	戶曹	장송판 292널 박송판 906널	대조리목 12개 장대조리목 9개
3	인릉	1835	戶曹	장송판 1,053.5널 박송판 240널	대조리 603개 장종조리 36개 중조리 160개 장소조리 230개 소조리 190개
4	경릉	1843	外都庫	박송판 146널 장송판 1,283널	대조리 8개 장소조리 164개 반소조리 161개

조각장인은 정자각과 비각에만 투입되었는데, 18세기 후반 이후 공포 조각에 30~45명이 동원되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을 보면 공정이 굉장히 분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걸맞은 장인 운영과 관리도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8세기 후반 이후 목공사 인원의 증가는 그만큼 감독 관원의 증가가 병행되어야 했다. 장인은 영역부장 또는 패장이 관리·감독하였다. 영조원릉산릉역까지 영역부장은 4~8명이었는데, 이후 8~12명으로 2배에 가까이 증가하였다.³⁸⁾ 이를 통해 효율적인 목공사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조달 방식의 변화 속 관속 장인의 축소화 경향

3-1. 목수 조달

(1) 17세기~18세기 초엽: 장인 부족 현상

1630년에 편찬된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의 도감

38) 이상명, 앞의 논문, 53쪽

사목(都監事目)을 보면,

사역에 응하는 각종 장인 등은 포살수 및 상사 아문 노비, 제궁가 노비, 조례, 나장을 논하지 말고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다 부역시킬 것³⁹⁾

이라고 하여 장인은 관부에 소속된 장인 외에 기술을 갖춘 다양한 인력을 동원한다. 장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포살수(砲殺手)는 포수와 살수로 모두 조선후기 훈련도감과 속오군에 소속된 군인이었다. 상사(上司) 아문(衙門)⁴⁰⁾과 궁가(宮家)에 소속된 노비도 동원되었다. 조례(阜隸)는 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이고, 나장(羅將)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로 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한다.⁴¹⁾ 훈련도감 군인의 경우, 군포로는 생활이 어려워 수공업 기술을 갖춰 시전에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병행하였는데,⁴²⁾ 그중 건축공사 기술을 확보한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원 인력의 계층을 보면 대체적으로 본업이 장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인력을 투입하고자 한 것은 당시 장인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효종영릉산릉역에서도 선조목릉천장산릉역과 같이 장인을 조달하는데, 다만 포살수에서 살수는 제외하고 포수만 동원하였다.⁴³⁾

현종승릉산릉공역(1674)에서 장인 조달 방식은 이전 시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사역에 응하는 각종 장인 등은 각 군문 군병 및 상사 아문, 제궁가 노비, 조례, 나장을 논하지 말고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다 부역시키으며, 외거 장인은 도감에서 이문하여 잡아들이옵소서.⁴⁴⁾

이전 시기의 포살수는 모두 군인으로 현종승릉산릉역에서는 군인 중 직종을 특정하지 않고, 기술을 갖춘 인력을 동원함에 따라 조달 방식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도성에 살지 않는 외거 장인을 도감에서 지방으로 공문을 보내 조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소 기록을 보면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9) 『선조목릉천장산릉도감의궤』, 도감사목조

40) 상사 아문은 공조 산하 관서로 추정된다. (출처: 김동욱, 앞의 책, 149쪽)

4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42) 송찬식,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12~22쪽

43)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사목단자조

44)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도감사목단자조

본소 등록에 안부된 장인은 한성부에 명하여 일일이 잡 아다 들이오며 제도감, 각 아문 장인은 직접 이문하여 추 축하고, 외거 장인은 또한 관문을 발송하여 추축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당상 수결내: 그렇게 하라.⁴⁵⁾

비속련자를 보내거나 혹은 기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 하여 해당 읍 수령은 중형을 면키 어렵고, 본도 역시 소 출한 책임을 면키 못할 것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며 두렵게 생각하며 거행할 일⁴⁷⁾

라고 하여 먼저 이전 조성소 등록에 기록된 장인을 한 성부를 통해 조달하고, 그다음으로 국장도감, 빈전도감 등 타도감과 각 관아에 소속된 장인을 들였으며, 마지막 으로 부족한 인원은 외거 장인을 통해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라고 하여 도감 등록에 안부된 장인의 경우 속련자가 사망하여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도별로 승속(僧屬) 을 가리지 말고 총 57명을 분정한 것이다.⁴⁸⁾ 이에 따라 원거리의 승장까지 동원하였는데, 인경왕후익릉산릉역 (1680)부터 단의빈묘소역(1718)까지 1~6명까지 승장이 투입되었다. 따라서 당시 도성 내 활동하는 목수의 인력 자체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 17C 후반~18C 초엽 조성소 목수 조달 (단위: 명)

구분	승릉	익릉	휘릉	사릉	장릉	명릉	단의 빈묘	민회 빈묘	의릉
	1674	1680	1689	1699	1699	1702	1718	1719	
한양	33	35	45	31	20	48	50	46	75
경기	26	7	12	-	-	9	11[1]	6	-
충청	11	6	6	-	2	4	3	-	-
강원	6	9	3[3]	-	28[4]	23	1	-	-
전라	-	10[3]	5[1]	-	-	6[3]	-	-	-
경상	-	6[3]	4	-	-	2[1]	-	-	-
합계	76	73[6]	75[4]	31	50[4]	71[4]	65[1]	52	75

* []는 승장의 인원수임.

위 기록에 따르면 외거 장인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외거 장인이 속한 지역별로 이동 거리에 따라 능소에 도착 기간의 차이를 두었는데, 가장 가까운 경 기는 7일, 그다음 공청·황해·강원은 12일, 가장 먼 전라·경상은 20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둘째, 장인의 인솔과 속 련 여부의 확인이다. 각 도, 각 군현에서 색리를 정해서 장인을 호송하고 능소에 도착해서는 차사원이 속련 여부 를 검사하였다. 셋째, 부적절한 장인을 보낼 경우의 책임 문제이다. 투입된 장인이 속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하는 읍 수령이 중형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 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을 보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엽까지 지 역별로 목수 조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까지 산릉역 중 경계 목수는 33~45명⁴⁶⁾ 정도로 도성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목수가 40명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산릉역에서는 75명 정도의 목수가 대체적 으로 동원되었는데, 도성 내 목수는 필요 인원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은 『인현왕후명릉도감의궤』, 『단의빈묘소도 감의궤』에서도 확인되어⁴⁹⁾ 이 시기까지 등록에 안부된 장인 중 속련자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18세기 초 민회빈묘역(1719)까지는 이전과 같이 경 거 장인 외에 외거 장인을 불러들이는데, 이 시기의 경 거 목수의 조달 인원은 46~50명으로 17세기 후반에 비 해서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경종의릉산 릉역(1725)의 경우 목수 75명을 동원하였는데 의궤 기록 을 보면,

상고할 일, 능소 정자각, 재실 조성의 역이 만분 긴급한데 도감 등록에 안부된 장인 중 속련자가 사망하여 없는 즉 이번 서울에 사는 목수 중 속련자가 끊어져 없어 각도에 분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므로, 경기 7명, 강원도 5명, 황해도 5명, 공청도 10명, 전라도 15명, 경상도 15명 승속 을 논하지 말고 속련자를 고르고 경기는 즉 11월 27일, 공청 황해 강원도는 즉 12월 초 2일, 전라, 경상 양도는 12월 초 10일에 미치고 별도 색리를 정하여 호송하고 능 소에서 차사원의 점검을 받되, 이와 같이 분부한 후 혹여

본소 사역 목수는 한결같이 신사등록(인현왕후명릉산릉공 역)의 수인 75명으로 사역하오며, 등록에 안부된 장인은 각 아문에 명하여 보낼 뜻을 이문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수결내: 그렇게 하라.⁵⁰⁾

45)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갑인 8월 26일조
 46) 단종장릉봉릉역의 경우 강원도 영월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경계 장인은 20명 정도만 동원하여 본 수지에서는 제외 하였다.

47)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이문감결급가고문서병목질」, 경신 11월 20일 각도료조
 48)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계색공장질」 내용을 보면 57 명으로 계획하였지만 그중 30명만 동원되었다.
 49) 『인현왕후명릉도감의궤』, 「조성소·이문질」, 신사 8월 18일 경기충 청강원전라경상료; 『단의빈묘소도감의궤』, 「조성소·이문질」, 무술 2월 15일 경기충청강원감영료조
 50)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갑신 9월 초5일조

라고 하여 이전과 달리 외거 장인은 불러들이지 않았다. 장인질을 보면 모두 경거 장인이 동원되어⁵¹⁾ 이전에 비해 도성 내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등록에 안부된 장인을 각 아문(衙門)을 통해 조달한 것을 명하고 있어, 이 시기 장인이 각 관아에 소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이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엽까지 경공장 외에도 외거 장인을 불러들여 산릉공역을 진행하였다. 이는 16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공장의 관청영선 이탈이 심화된 결과이며, 유능한 장인이 사대부가의 공사장에 빠져나가게 되어 관청영선 조직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견해⁵²⁾와 맥락을 같이 한다.

(2) 18세기 중엽: 관속 장인의 안정적인 조달

18세기 중엽 산릉도감 조성소에서 장인을 조달하는 방식은 경종의릉산릉역과 같이 등록에 안부된 장인을 각 아문에 명하여 동원하였다.⁵³⁾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산릉도감의궤에서는 조성소 장인 질에 장인 이름 뒤에 소속을 기록하여 장인들이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경왕후은릉봉릉역을 보면 목수는 총 66명이 동원되었는데, 그중 사장(私匠)은 1명이고 소속을 표기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2명은 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18세기 중엽 산릉공역에 동원된 목수의 소속은 크게 관아, 사장,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장은 경거 장인 중 민간 장인에 해당하고, 기타는 외거 장인 등을 포함한다. 민간 장인은 단경왕후은릉봉릉역을 제외하면 9~19명 정도로 필요 인원의 11~25% 정도를 차지하였고, 기타 인원은 그보다 적어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수의 인원은 관아에 소속된 장인이었다. 관아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조 산하에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서인 선공감(繕工監), 구영선(九營繕)⁵⁴⁾ 및 자문감(紫門監)⁵⁵⁾과, 건축공사와 직접

표 8. 18세기 중엽 산릉공역에서 목수 조달 [단위: 명(%)]

구분	소속	은릉	의소	소령원	순강원	홍릉
		1739	1752	1753	1755	1757
공조산하 아문	繕工監	7(11)	14(19)	-	3(9)	7(9)
	(九)營繕	15(23)	8(11)	12(28)	9(27)	10(13)
	紫門監	13(20)	7(9)	6(14)	2(6)	7(9)
	尙衣院	17(26)	16(21)	10(23)	5(15)	26(33)
일반 아문	內需司	9(14)	9(12)	3(7)	2(6)	9(11)
군문	訓局	1(2)	-	-	-	2(3)
	禁衛營	-	1(1)	1(2)	-	-
	御營廳	-	-	2(5)	2(6)	4(5)
	摠戎廳	-	-	-	1(3)	1(1)
사장 및 기타	私匠	1(2)	19(25)	9(21)	9(27)	9(11)
	기타	3(5)	1(1)	-	-	5(6)
합계		66	75	43	33	80

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는 공조 산하의 왕실 의복과 재화를 관리하는 상의원(尙衣院)이었다. 둘째는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내수사(內需司)이며, 셋째는 군문에 해당하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및 충용청이었다. 국초부터 건축을 담당하는 주요 관서인 선공감의 경우는 숙빈상시봉원역(1753)을 제외하고 3~14명(9~19%)을 투입하였는데, 구영선은 8~15명(11~28%)로 선공감보다 다소 많이 동원되었다. 자문감은 선공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을 조달하였다. 상의원에서 동원된 인원은 5~26명(11~33%)으로 구영선보다도 다소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건축 관련 아문에서 동원한 인원은 14~35명(31~54%) 정도였다. 다음으로 내수사에서 동원된 목수는 2~9명(6~14%)으로 공조 산하 아문에 비하면 비중은 적었다. 마지막으로 군문에서 동원된 목수는 1~7명(1~9%)로 타 소속처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목수의 소속 체제를 분석한 결과, 18세기 중엽 목수 조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이전 시기에 비해 관속 장인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영건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⁵⁶⁾ 둘째, 목수가 속한 관아의 유형을 보면 공조 산하의 아문은 구영선, 자문감 등 새로운 아문이 신설되는데, 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시기에 비해 늘었지만

51)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계색공장질」을 보면 이전에는 경거 장인과 외거 장인을 구분할 때 경거 또는 각 군현 명칭을 장인 뒤에 표기하였는데, 이때에는 외거 장인인 경우만 표기되어 있어, 그 외의 경우는 경거 장인임을 알 수 있다.

52) 김동욱, 앞의 책, 155쪽

53)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숙빈상시봉원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계유 7월 초1일조;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을해 6월 일조; 『숙빈상시봉원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계유 7월 초1일조; 『정성왕후은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정축 2월 16일조

54) 영선(營繕)은 『속대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조에 속하여 구영선(九營繕)이라 하여 종묘, 동대문, 남대문 등 궁궐 외 각처를 9소(九所)로 나누어 수리를 담당하였다. (출처: 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소, 『國譯 大典會通』,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60, 617쪽)

55) 자문감(紫門監)은 『속대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조(工曹)에 속하여 시어소(時御所)의 각전(各殿)·각당(各堂)·궐내 각사(各司)의 청사를 보수하고, 차비문(差備門) 안의 각종 기물 제작, 내방고(內水庫)의 공상(供上)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하였다. (출처: 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소, 위의 책, 617~618쪽)

56) 김동욱, 앞의 책, 156~159쪽

국초에서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선공감에 속한 목수는 60명이었는데, 18세기 중엽에는 최대 동원된 인원이 14명으로 조선전기에 비하면 선공감이 관할한 목수의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고, 건축 관련 관서에서 동원한 목수도 최대 35명으로 당초 선공감의 목수 인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비해 18세기 중엽은 선공감에서 전체 장인을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관서별로 필요한 목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인원은 상의원, 내수사, 군문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셋째, 이전 시기에 비해 외거 장인은 거의 동원되지 않고 대부분 경공장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경종의릉산릉역(1725) 이후 도성 내 활동하는 목수의 인원은 산릉공역을 치루는 데 문제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민간 장인인 사장이 적지 않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후 민간 장인의 활동이 확대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 18세기 후엽~19세기 중엽: 관속 장인 조달 방식의 최소화와 명맥 유지

18세기 후반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부터는 장인질의 기술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장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의궤는 『정성왕후릉도감의궤』가 마지막이고, 이후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부터는 장인질에 소속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⁵⁷⁾ 장인질의 명단 자체가 축소되고 생략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까지는 대부분 장인 이름을 각각 기록하였는데, 『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부터는 목수만 각각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장인은 ‘○○○等 ○○名’으로 대표 장인 이름만 언급하고 나머지 장인은 인원수로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부터는 목수도 편수를 제외하고 인원수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변화 경향이 장인 조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후엽 조성소에서 장인 조달하는 기록을 보면 이전 시기와 차이 없이 등록에 안부된 장인을 각 관아에 명하여 불러들이는데, 각 아문 외에 각 군문을 추가한다.⁵⁸⁾ 이러한 기록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영건도감의궤 중 『화성성역의궤』(1801) 장인질에는 장인의 소속과 출신이 기록되므로 적어도 18세기 말까지는 장인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57) 다만 『장헌세자현릉원원소도감의궤』에서만 한 차례 출신 지역이 표기된 경우가 있다.

58)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병신 3월 11일조

표 9. 화성성역(1796) 중 한양에서 목수 조달 [단위: 명(%)]

구분	소속	목수 인원
공조 산하 아문	繕工監	12(5)
	營繕	-
	紫門監	-
	尙衣院	1(1)
일반 아문	內需司	13(5)
군문	訓局	3(1)
	禁衛營	2(1)
	御營廳	2(1)
	摠戎廳	1(1)
기타	무소속	204(86)
합계		234

화성성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아문 및 군문 소속 장인이 총 34명 동원된 것이다. 이는 18세기 중엽의 단경왕후릉봉릉역, 정성왕후릉산릉역에서 관아 소속 장인이 각각 62명, 6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관속 장인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공장 중 무소속 즉 민간 장인이 20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18세기 중엽 산릉공역에서 최대 19명의 민간 장인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50여 년 만에 약 10배 이상 인력이 급증가한 것이다. 인정전영건역(1805)의 경우, 목수는 총 268명을 동원하였는데, 그 중 12명은 경기에 기거하는 목수였고, 나머지 256명은 소속은 알 수 없지만 한양에 사는 목수였다.⁵⁹⁾ 아문 및 군문 소속의 목수는 화성성역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아므로 한양 출신의 민간 목수는 230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230여 명의 민간 장인이라는 것은 이 시기 도성 내 및 주변 건축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건축 시장이 이러한 인력을 수용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수 인력 중에는 고급 기술을 갖춘 장인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관영건축을 조성할 때 더 이상 관속 장인에 의지할 필요가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세기에 민간 장인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런데 산릉도감 조성소에서는 19세기 중엽까지 18세기 중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각 군문 및 각 아문을 통해 장인을 조달하였다. 하지만 화성성역에서 확인된 변화를 통해 본다면, 산릉공역에서도 19세기 관속 장인의 활동 범위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소 장인질에 소속과 출신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치적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59) 『인정전영건도감의궤』, 『공장』

『익종수릉산릉도감의궤』 기록을 보면,

금초 10일 구수어청에서 재목 치련을 시역하는데 목수 30명, 강장 50명, 걸거장 20패를 미리 영솔하여 부속시키는 일을 선공감 및 노량진, 양화진에 봉감하오며⁶⁰⁾ (익종수릉산릉역, 1846)

라고 하여 19세기 중엽 일부 목수는 선공감을 통해 여전히 조달되고 있었고, 이는 철종예릉산릉역(1864)⁶¹⁾까지 이어진다. 익종수릉산릉역의 경우 소부석소에서 석수를 조달하는 기록을 보면,

본소 부석의 역을 오로지 잇는 석수의 치부(책)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므로 도감을 설치하고 이미 달을 넘어가므로 ... 각 영문 및 내수사, 선공감에 안부된 석수를 일일이 고쳐 책을 만들어 시급히 영솔하여 부속시키려는 뜻을 신칙하오며⁶²⁾

라고 하여 소부석소 등록에 안부된 관속 석수의 명단이 일정하지 않아 각 영문, 내수사, 선공감에 다시 관속 장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장인을 조달할 것으로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19세기 중엽까지는 석수를 비롯한 목수도 여전히 선공감 등을 통해 조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각소 등록에 기록된 장인 명단과 실제 장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많은 관속 장인들이 더 이상 관의 예속을 벗어나 민간 장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장인의 관리도 힘들었고, 조달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 「공조편」의 경공장조에는 “(공장의)籍(적)을 만들어 본조에서 소장하던 법은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 『속대전』을 편찬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지금도 그대로 고쳐지지 않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속대전』을 편찬하던 1746년(영조 22)에도 공장 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공장의 등록제도가 이미 18세기 중엽에 유명무실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⁶³⁾

이와 같이 관속 장인이 줄어드는 경향이 시대적 흐름이었지만, 그럼에도 관영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능력 있는 장인이 필요했고, 선공감 등 아문 및 군문을

통해 필요한 장인을 조달하는 방식은 19세기 중엽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인원 조달의 비중은 대폭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목수 외 장인 조달

(1) 톱장이

톱장이는 『경국대전』에 경공장의 직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톱장이는 아래의 의궤 기록과 같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는 한성부를 통해 동원된 한양에 거거하는 민간 장인이었다.

강상 재목은 시간을 맞추지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인거 및 견정하는데, 대거 5패, 걸거 5패를 한성부에 명하여 예에 의거하여 맡기되⁶⁴⁾ (인경왕후익릉산릉역)

재목 벽련 목수 20명은 등록에 의거하여 모조역 20명, 대건 5패, 걸거 5패, 합 75명 및 화정 4명은 그 실역 일수에 따라 요포를 마련하여 내리며, 걸거 5패는 한성부에 명하여 예에 따라 촉부하오며⁶⁵⁾ (인현왕후명릉산릉역)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획만큼 원활하게 조달되는 않았다. 따라서 단종장릉봉릉역의 경우 내수사에서 대인거장 1패를 동원⁶⁶⁾하기도 하였고, 경종의릉산릉역에서는 별공작에서 인거 1패를 조달⁶⁷⁾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엽에는 두 차례 톱장이의 소속이 확인되는데, 의소세촌묘소역의 경우에는 대인거군이 구영선 소속이었고, 나머지 톱장이는 사장이었다. 인빈상시봉원역(1755)의 경우 대인거군과 걸거군이 선공감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사장이었다.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의 조성소 기록을 보면,

이번 정자각 선자귀(분합) 및 각양 인거의 역은 가장 시급하니 병신등록에 의거하여 대인거 7패, 걸거 6패, 소인거 8패 등 능소에 나가기 전 2일에 맞추어 우선 본소에 영솔하여 부속시키는 일 및 기계장 4명 역시 기한에 맞춰 영부하는 일을 선공감에 감결하여 주십시오.⁶⁸⁾

라고 하여 병신등록(1776, 영조원릉산릉역)에 의거하여 톱장이 인원을 선정하고, 선공감을 통해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기록을 보면,

60) 『익종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병오 3월 초9일조

61)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을묘 2월 26일조

62) 『익종수릉산릉도감의궤』, 「소부석소·품목」, 병오 3월 초9일조

63) 김동욱, 앞의 책, 241~245쪽

64)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경신 11월 초8일조

65)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신사 8월 29일조

66)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내관질」

67)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68)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

노량진 선장 40명, 기거장 5패, 양화진 선장 20명 출능일 영부할 일을 각각 해당 별장에게 분부하오며, 대인거 3패, 소인거 30패, 걸거장 15패는 출능일에 영부할 일을 선공감에 신척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수결내: 이문하라.⁶⁹⁾

기거장 15패 밤을 잇고 보낼 뜻을 선공감에 봉감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수결내: 아울러 각각 해당하는 관사에 봉감하라.⁷⁰⁾

라고 하여 대인거군, 소인거군, 걸거군은 선공감을 통해 조달하였고, 노량진에 활동하는 기거장은 해당 별장을 통해 조달하였는데,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면 기거장도 선공감 등을 통해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공감이 일정 정도 톱장이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철종예릉산릉역(1864)까지 이어진다.

표 10. 18세기 중엽 산릉구역에서 톱장이 조달

구 분	의소세손묘(1752)				순강원(1755)			
	대	소	기	걸	대	소	기	걸
繕工監					20			10
(九)營繕	20							
私匠		6	6	8		6	6	
합 계	20	6	6	8	20	6	6	10

※ ‘대’는 대인거군, ‘소’는 소인거군, ‘기’는 기거군, ‘걸’은 걸거군의 줄임말임.

따라서 용산강 일대에서 활동하던 톱장이들은 18세기 초까지는 한성부를 통해 조달하였지만,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관영건축의 주요 관서인 선공감에서 관리하였던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건축공사에서 톱장이 그만큼 중요한 직종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민간 목재상을 통한 판재 등 가공 목재의 구입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톱장이 조달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2) 조각장인

제각장은 『경국대전』의 공전 내 공장조에 나타나지 않는 직종이다. 다음의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기록을 보면 17세기 후반 제각장은 한성부를 통해 동원되었으며, 특정 관아에 소속되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자각 공답, 살미 등 조각의 역이 만분 긴급한데 약간의 장인으로는 기한에 맞춰 조각을 마치는 것이 그 사세를 따를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제각장 4명을 긴급히 촉부하

는 일을 이미 봉감하였는데...⁷¹⁾

조각장은 『경국대전』의 공전 내 공장조⁷²⁾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조 2명, 상의원 4명, 교서관 8명, 선공감 10명으로 총 2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표 11. 18세기 중엽 산릉구역에서 조각장인 조달

구 분	온릉(1739)		의소세손묘(1752)		소령원(1753)		순강원(1755)		홍릉(1757)	
	조	목	조	목	조	목	조	목	조	목
內需司	1									
訓局				6		6		4		
私匠	4		6				6			
무소속					6				8	
합 계	5	-	6	6	6	6	6	4	8	-

※ ‘조’는 조각장, ‘목’은 목혜장의 줄임말임. ‘무소속’은 소속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임.

<표 11>을 보면, 단경왕후온릉봉릉역에서 조각장은 내수사 1명, 사장 4명이 투입되었다. 내수사에는 원래 조각장을 두지 않았다. 이후 내수사에 소속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한시적으로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소세손묘소역부터 정성왕후홍릉산릉역까지 4차례 산릉구역에 6~8명이 투입되었는데 사장으로 표시된 경우가 2차례, 소속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2차례이다. 소속이 표기 안 된 경우는 사장으로 추정되므로, 조각장은 대체로 민간 장인이 산릉구역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의 경우 한양에서 26명의 조각장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금위영 소속 1명을 제외하고 25명은 사장이었다.⁷³⁾ 화성성역 당시 조각장의 많은 인원이 사장으로 투입된 만큼 18세기 후반 산릉구역에서도 조각장은 민간 장인 투입이 일반적이었고, 19세기도 그러한 경향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혜장은 『경국대전』에는 경공장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목혜장은 의소세손묘소역부터 4~6명이 투입되는데, 모두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다. 화성성역의 경우 한양에서 목혜장 33명을 투입하였는데, 그중 훈련도감 11명, 금위영 2명, 어영청 1명 등 군문에서 14명이 투입되었고 나머지는 사장이 투입되었다.⁷⁴⁾ 화성성역에서 군문에 속한 목혜장의 투입 비중이 1/3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71)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이문급감결절」, 갑인 9월 25일 한성부료감결조

72) 『경국대전』 권6, 「공전」, 공장조

73) 『화성성역의궤』 권4, 「공장」

74) 『화성성역의궤』 권4, 「공장」

69) 『효현왕후경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계묘 9월 초8일조

70) 『효현왕후경릉도감의궤』, 「조성소·품목질」, 계묘 10월 16일조

있다. 산릉구역에서도 19세기 초엽까지는 군문 소속 목혜장과 민간 목혜장이 함께 투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조각장인은 관영건축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목혜장을 제외하고는 관청에 소속되어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선장

선장은 효의왕후건릉산릉역부터 투입되는데, 다음의 의례 기록을 보면,

노량진 선장 40명, 기거장 5패, 양화진 선장 20명 출닐일 영부할 일을 각각 해당 별장에게 분부하오며⁷⁵⁾ (효현왕후 경릉산릉역)

금차 사촌리에서 재목 치련을 시역하는데 목수 30명, 선장 50명, 걸거장 20패를 먼저 영부할 일을 선공감 및 노량진, 양화진에 봉감하오며⁷⁶⁾ (익종수릉천봉산릉역)

효현왕후경릉산릉역의 경우, 노량진에서 40명, 양화진에서 20명을 각각 해당하는 별장을 통해 동원하였고, 익종수릉천봉산릉역의 경우 선장 50명을 노량진과 양화진에서 조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철종예릉산릉역까지 이어진다. 배를 만드는 선장의 주요 활동 지역이 노량진과 양화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진을 관리하는 별장을 통해 실력 있는 선장을 조달하였던 것이다. 선장은 목수의 보조적인 인력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조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 관청에 소속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에서 목공사 장인의 업무 배정 및 직종의 세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산릉도감의례를 들여다보았다. 이를 통해 관영건축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관속 장인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해, 건축 환경의 변화와 접목하여 시기별로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릉구역 내 목공사에는 목수를 비롯해 9종의 장인이 배정되었다. 산릉구역에서는 관영건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치목 영역별로 가구부, 수장·창호부, 공포부로 구분하여 직종별로 장인이 투입되었다. 가구부는 목수 외에 19세기 초부터는 배를 만드는 선장이 동원되었다. 수장·창호부는 톱장이 1차적으로 투입되었다. 톱장은 18세기 중엽부터 4종으로 분화되는데, 걸거장이 목재 양

단을 자르고, 대인거군과 소인거군은 크고 작은 관재 및 수장재를 컷으며, 기거군은 창호재나 조리목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포 등 조각이 필요한 부재는 17세기에는 제각장이 전담하였으나, 18세기 들어서는 조각장으로 대체되고, 18세기 후반부터는 목혜장도 함께 투입되었다.

둘째, 산릉역에서 목수는 18세기까지 75명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인력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공사 시기와 관련되지만 이 시기의 민간 장인의 공급이 급증한 것과는 연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톱장은 18세기 후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건축 자재의 수요 증가와 민간 목재상의 성장과 관련성이 높다. 민간에서 가공 목재 거래의 확대는 톱장이 직종의 세분화를 견인하였고, 19세기부터는 가공목재의 수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관영건축공사에서 톱장의 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조각장인도 18세기 후반 이후 증가하는데, 최대 45명까지 투입되었다. 목공사 장인은 최대 300여 명까지 투입되었다는 것은 공정별로 분업화되어 가공 및 조립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셋째, 산릉구역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엽까지 관청 소속의 목수 조달이 어려웠다. 그 결과 장인이 아닌 자 중에 기술을 갖춘 모든 인력이 동원되었고, 경공장이 부족하여 외거 장인까지 조달하였다. 18세 중엽부터는 관속 장인체계가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공조 산하의 건축 관련 관서 소속의 장인은 조선초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점차 민간 장인의 투입 비율이 증가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는 관속 장인의 투입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초 영건역 당시 한양에서 활동한 민간 목수가 230여 명 정도로 급증하여, 더 이상 관속 장인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중엽까지 선공감을 통해 목수를 조달한 것을 보면 관영건축공사에서는 민간 장인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관영건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수준의 관속 장인을 계속해서 조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톱장은 18세기 초까지는 한성부를 통해 동원하였는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까지는 선공감을 통해 조달하였다. 이는 그만큼 톱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관에서 인식한 결과이며, 실력 있는 톱장이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조각장인은 관영건축에서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민간 장인을 투입하였다. 선장 또한 목수의 보조 인력으로 관에 소속시켜 관리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산릉구역에 투입된 목공사 장인의 처우와

75)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례』, 「조성소·품목」, 계묘 9월 초8일조

76)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례』, 「조성소·품목」, 을묘 2월 26일조

34 논문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장인이 받은 임금 등의 변화가 영건역과 같이 19세기 들어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임금의 변화가 관속 장인 인원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소, 『國譯 大典會通』,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60
2. 김동욱, 「高麗時代 建築工匠의 官職制度考 -造營體制에서 본 韓國建築의 古代와 中世-」, 건축, 26권, 3호, 1982
3. 김동욱, 「新羅의 「大匠」에 대하여 -韓國古代建築의 造營體制-」,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계획계), 2권, 1호, 1982
4. 김동욱, 「朝鮮後期 建築工匠의 勞賃考 -勞賃支給方法의 變化에서 본 官營建築工事에서의 工匠의 雇傭體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권, 1호, 1985
5. 김동욱,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 -朝鮮前期 中世의 造營體制的 崩壞-」, 건축, 27권, 3호, 1983
6. 김동욱,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I) -朝鮮後期 官營建築工事에서의 工匠組織-」, 건축, 27권, 4호, 1983
7. 김동욱,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III) -朝鮮後期 佛寺造營에서의 工匠組織-」, 건축, 27권, 6호, 1983
8. 김동욱, 「조선조 17세기 궁궐건축공사에 종사한 목수편수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1권, 1호, 1992
9.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10. 김왕직, 「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건축경제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1. 문영식, 「조선후기 山陵都監儀軌에 나타난 匠人의 造營活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2. 송찬식,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13. 이상명, 「산릉의례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4. 이상명·김왕직, 「19세기 정자각의 시공과정과 시공관리 연구 -산릉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2권, 4호, 2016
15. 이연노,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 -영건의례 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권, 8호, 2009
16. 장경희,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장인 연구 -왕릉 정자각과 석의물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호, 2007

접수(2017. 6. 13)

게재확정(2017. 7. 10)